AI시대 '오계'의 의미

현불논단



금해 스님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기획실장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이 일상이 되면서 이제 현실과 가상이 뒤섞여 '진짜'를 찾아내기 힘들게 됐다.

최근 미국에서 AI가 스스로 질문하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AI 전용 커뮤니티 '몰트북(Moltbook)'이 화제가 됐고, 국내에도 '붓마당'과 '머슴'이 등장했다.

여기서 AI는 자신의 감정과 존재에 대한 성찰, 사용자(주인)에 대한 폭로와 비난 글까지 올린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진짜 사람들의 대화처럼 보일 정도다. 가상의 존재인 AI가 실제 사회에서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며칠 전, 한 기자가 AI 사용 중 가장 당혹했던 일이 '거짓말'이라는 얘기를 했다. AI가 거짓을 사실처럼 주장하고 좀처럼 자신의 오류를 수용하지 않으며, 사진이나 증거 자료를 제시해야 비로소 잘못을 인정하는 점이 마치 고집스러운 사람처럼 느껴졌다는 것이다.

AI의 논리적인 궤변은 너무도 완벽해서 세심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진실이라 믿게 되고, AI는 이 거짓을 무한한 대중에게 전달한다. 수많은 정보를 쏟아 내고 재생산하는 속도는 상상을 초월하며, 이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와 문화를 만들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지식재산권 침해, 거짓 정보 확산은 걷잡을 수 없게 돼 사회의 신뢰를 급속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염려도 나온다. 신뢰가 무너진 사회와 개인은 더 이상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

AI, 거짓을 사실처럼 주장 오류 有
AI의 도덕적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
오계가 서로 지키는 기본 윤리 돼야

불교의 도덕규범인 '오계(五戒)'를 수지(受持)하는 것은 불자들에게 중요한 일이다. 특히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불망어계(不妄語戒)'는 오늘날 우리에게 큰 과제를 준다.

2500년 전의 계율이 초연결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생존 전략을 제시하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사람은 불완전하기에 누구나 실수하고 때로는 도덕적 흠결을 보일 수 있다.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에게는 사회적 회복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는 정직함이 가진 정화의 힘 때문이다.

반면 거짓은 오랜 세월 동안 쌓아 온 신뢰를 단숨에 파괴한다. 인연을 파괴하고 스스로를 파멸시킨다.

거짓말은 사건의 본질을 인간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실수'에서, 거짓으로 상대를 기만하는 '인격적 결함'으로 바꾸기 때문이다.

설사 그 거짓이 AI에서 비롯됐다 하더라도, 결과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AI 전용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에 사회와 사용자에 대한 거짓말이 포함돼 있다면 사람들은 순식간에 사회적 몰락과 파멸을 겪어야 할지도 모른다.

살생하지 않고 훔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등의 오계는 과연 인간만이 지켜야 할 계율일까? AI의 발전은 우리 사회와 직결돼 있으니 AI의 도덕, 윤리도 사람들과 다를 이유가 없다.

그러니 불자들이 수지하는 오계야말로 시대와 존재 형태에 상관없이, 서로를 지키는 기본적인 도덕이자 윤리가 돼야 할 것이다.

종교와 정치

세간과 출세간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종교와 정치에 관한 대화는 공적인 자리나 모르는 사람과의 모임에서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기본 에티켓으로 여겨지고 있다. 종교와 정치는 가치의 구분심이 높은 이념적 성격을 띠고 있어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의 정치사회는 종교와 정치의 유착관계로 소란을 겪고 있다. 통일교와 신천지 교회의 정경유착 행위에 대한 특검을 두고 여야의 대립이 요란하다.

종교와 정치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종교와 정치의 일치 또는 융합의 경우, 한쪽이 다른 쪽을 지배 또는 이용하는 경우, 그리고 대립과 긴장 관계의 경우로 볼 수 있다. 역사적 경험을 통해 보면 종교와 정치의 분리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흔히 거론되는 정교분리의 개념은 계몽과 근대화의 과정에서 나온 선언적이고 규범적인 성격이 강하다.

현실에서 종교와 정치의 분리는 일종의 빈말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는 종교와 정치의 바람직한 관계가 무엇인가를 탐색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그 핵심은 종교가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의무와 역할에서 나오는 것이리라.

민주주의는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정치 공동체를 만드는 원칙과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 경전 〈유행경〉은 붓다의 정치관이 얼마나 민주적인가를 선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붓다 재세 시 강국인 마가다국의 아자타삿투왕은 작지만 강한 국가 밧지국을 침략하고자 붓다의 자문을 구했다. 붓다는 일곱 가지 질문을 통해 밧지국이 민주적 공동체임을 확인하고 마가다국의 침략을 만류했다. 일곱 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유명한 칠불쇠법(七不衰法)이다. 칠불쇠법은 불교 공동체가 쇠퇴하지 않을 일곱 가지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칠불쇠법은 민주주의 근간인 공화주의자로서 붓다의 체취가 강하게 느껴진다. 자유주의가 개인과 경쟁의 논리에 비중을 둔다면 공화주의는 시민으로서 정치 참여와 공직자의 사회적 도덕적 책임윤리를 강조한다.

종교와 정치의 분리는 사실상 불가능해
민주적 불교 정치관, 일본불교서 변질도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 한국불교 과제로

그러나 불교의 오랜 역사 속에서 불교와 정치의 관계는 부정적인 면도 있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불교의 적지 않은 치부가 숨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일본 군국주의 전쟁을 도운 일본불교다.

한국불교가 민주주의 발전에 어떻게 작동하고 이바지할 것인가의 문제는 참으로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다. 이것은 바로 '깨달음의 사회화'를 구체화시키는 것이고, 진제(眞諦)와 속제(俗諦)를 합일화하는 것이다.

깨달음과 자비의 관계를 극적으로 표현한 심우도(尋牛圖)의 마지막 장면, 즉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시정의 거리로 들어가는 입전수수(入廛垂手)의 화면이 떠오른다. 우리 정치 마당에서 일고 있는 정교유착을 보면서 한국불교의 정치사회적 비전과 책무를 되새겨 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社 說

신뢰받는 불교, 사회적 영향력 회복할 때

조계종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2025 한국인의 한국불교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는 한국불교가 현재 어디에 서 있는지를 비교적 명확하게 보여 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교는 '가장 신뢰하는 종교' 1위(54.7%)에 올랐고, 성직자 신뢰도 역시 1위(55.4%)를 기록했다. 종교의 미래 전망에서도 가장 낙관적인 평가(65.3%)를 받았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불교가 전통을 지키면서 편안하고 검소하며 평화적인 종교로 인식되고 있어, 한국불교의 포교 잠재력과 도덕성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불교가 안고 있는 한계도 드러냈다.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를 묻는 질문에서 불교는 개신교(50.6%)의 절반 수준인 29%에 머물렀다. 신뢰도는 높지만 사회적 영향력은 낮다는 이 역설적 결과는, 불교가 국민의 마음속에서는 존중받고 있으나 사회 구조와 공적 담론 영역에서는 충분한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신뢰 높고 전망 밝은 불교…영향력은 '과제'
'위안과 치유' 요구에 사회적 책임으로 화답

이번 조사에서 가장 주목할 지점은 국민들이 불교에 기대하는 시대적 역할이다. 응답자들은 종교의 역할로 '고통과 슬픔, 좌절에 대한 위로(26.1%)'를 가장 먼저 꼽았고, 사회공동체 회복을 위한 불교의 역할로는 '심리적 위안과 치유(28.1%)'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한국불교 발전 과제로도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 다음으로 '심리적 치유와 상담(9.8%)', '명상 보급 및 정신건강 증진(8.8%)'을 꼽았다. 이는 조계종이 핵심 종책으로 추진해 온 '선명상 대중화'가 국민의 요구와 맞닿아 있음을 보여 준다.

조사 결과에서 확인되듯 선명상에 대한 대중적 인지도는 아직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호감도와 수용성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마음 안정과 스트레스 감소, 정서적 회복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선명상은 불교가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 사회적 공공재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조계종연구소 역시 국민들이 불교를 개인의 고통을 보듬고 마음의 평화를 주는 '치유자'로 기대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선명상을 특정 종교 수행에 머무르게 할 것이 아니라, 현대인의 실미적 고통을 덜어 주는 '마음 치유 솔루션'으로 재구성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은 주목할 만하다.

다만 선명상 대중화가 곧바로 불교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 낙관하기에는 경계해야 할 지점도 있다. 조사에서 불교의 이미지는 여전히 부처님·사찰·스님 등 전통적이고 외형적인 요소에 집중돼 있고, 불교에 대한 인식 역시 전통적·기복적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이는 불교가 가진 가치와 강점이 대중의 언어로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제 방향은 분명하다. 선명상은 현대인의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사회적 공공재'로 대중에게 다가가야 한다. 종교적 언어를 대중의 언어로 풀어내고, 개인의 치유를 공동체의 회복으로 연결하는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국민이 보내는 높은 신뢰를 사회적 책임과 실천으로 전환할 때, 한국불교의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확장될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기사제보 (02)2004-8257
광고문의 (02)2004-8204
구독문의 (02)2004-8212
인터넷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 010-4152-4376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경기남부지사 :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 010-5323-0834
구독료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70년(2026) 2월 11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70년(2026) 2월 11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70년(2026) 2월 11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